

시마이스터고 설립 등 대선 광주교육 정책 제안

시교육청, 4대 정책·6개 과제 선정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설립 글로벌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제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마이스터고 설립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광주교육의 정책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4대 정책·6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4대 정책은 △AI·미래모빌리티 인재

키우는 광주교육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 건강한 광주교육 △예술과 스포츠가 생활이 되는 광주교육 △오월정신·이제는 모두의 교과서 등이다.

이를 실현할 6대 과제는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건립, 학생 전용 K-컬처 공연장 마련, 광주 체육중고 이전 및 글로벌 청소년 스포츠센터 구축,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교육 의무화 등이다. 먼저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광주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 수요 맞춤형 실전 인재 양성하고, 첨단 교육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정신건강 통합지원기관인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를 설립해 학생, 교직원, 학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3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모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제시했다..

또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K-컬처 공연장'을 조성하

고, 노후화된 체육중·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동시에 '글로벌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수준 높은 스포츠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국 학교 대상 5·18 교육 의무화' 추진도 각 당에 제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각 정당 대선 후보가 광주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광주의 정체성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광주교육 4대 정책이 제21대 대선 공약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희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 교육시민단체, 일선고교 '특정 대학 합격 홍보' 제재 촉구

"광주시교육청 철저히 지도·감독"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지역 내 일선 고등학교들의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특정 대학 합격 홍보 행태를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3일 광주광역시 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특정 대학 합격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A여고는 건물 외벽에 대학 합격 현수막을 설치, B여고는 정문 출입구에 홍보물을 게시했다"며 "또한 C고교, D고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합격 사실을 홍보, E여고는 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한 대면 연수에서 대입 실적을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F고교는 1987년부터 특정 대학 중심의 진학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며 "최근 유명 사교육 강사를 초청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어 입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입시경쟁 유발, 학생들의 자존감 저하 등을 이유로 대학 홍보 게시물에 반대해 왔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단체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 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고 학생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학원 또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승우 기자**

시민들과 소방대원의 신속한 처치로 70대 소생

심정지... 심폐소생술 등 시행

시민들과 소방대원이 복지타운에서 쓰러진 70대 남성을 신속한 처치로 소생시켰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내 식당에서 7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당시 환자는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으며 이를 목격한 효령노인복지타운 물리치료사인 김걸(48·사진)씨가 즉시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사용해 제세동을 두 차례 시행했다. 동시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초기 응급조치가 빠르게 이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즉시 추가 처치를 이어갔으며, A씨는 현장에서 자발적인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을 되찾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정승우 기자**

"면허 취소에도 또 음주운전"... 도주 끝 붙잡힌 20대 구속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중반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서구 치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몰다 좌회전 중이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주간의 수사를 통해 사고 직후 도주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 음주운전과 도주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스포츠센터 앞에서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 정부 건설을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제공**

광주·전남 대학생, "민주정부 건설 위한 대선투쟁" 선포

진보연합, 전남대학교서 기자회견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대선 투쟁을 선포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23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 정부를 건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은 마침내 내란수괴를 파면했지만, 내란에 동조한 많은 세력은 반성과 사과 없이 대선 출마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국민의 세금을 내란범들과 함께 사용했다"며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혈세가 그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대선은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민주 정부를 건설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향후 이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전남 노동단체 "GGM 파업 유보 권고 헌법 침해"

"다른 상생형 일자리도 부정 영향"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를 향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권고한 '파업 유보'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재안을 전달했으나 노동 3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면

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중재특위는 중재안에 35만 대 생산 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를 권고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또 "특위는 중재안을 통해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사측에 제시된 사무실 제공과 조합비 일괄 공제는 노사관계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나아가 노동복지 강화 등은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시에 권고한 공동 복지프로그램과 주거지원비 역시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GGM 파업이 유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다른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특위는 파업 유보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측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준 기자**

목포 해상서 60대 추정 변사자 발견... 해경 수사

"숨진채로 물에 빠져 있다" 신고

전라남도 목포 남항 인근 해상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4분께 목포 산정동 남항 관공선 부두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숨진 채로 물에 빠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관계당국은 60대로 추

정되는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신고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